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5 Issue | Vol. 1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목표 이하 성장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하다 —page 1-2
- BSP, 외부 감사인 선정 새로운 방안 승인 —page 2-3
- PEZA, CREATE MORE IRR 서명으로 더 많은 투자자 유치 기대 —page 3
- 마르코스, BOT 계약 하 민간발전사업자의 부동산세 감면 및 탕감 —page 4
- 필리핀-유럽연합, 협상 가속화, 2027년 이전 완료 목표 —page 4
- 미국, 반도체 관세 25% 예고... 수출 둔화 우려 —page 5

목표 이하 성장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하다

February 19,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목표 이하 성장과 관리 가능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올해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할 것이라고 DBS 은행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라 글로벌 마켓 리서치의 분석가는 BSP가 지난주 회의에서 '지속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금리 인하를 시행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DBS의 수석 경제학자 라디카 라오(Radhika Rao)는

"성장-인플레이션 역학이 추가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며, 실제 금리 버퍼가 2.5%-2.75%로 상당히 넓어 통화정책이 성장을 지원할 여유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DBS는 2024년 예상보다 낮은 5.6% 성장 후 올해 GDP 성장률이 6% 이하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6-8%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BS는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활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월의 전체 물가 상승률은 2.9%로 중앙은행의 2-4%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Individuals buy flowers at a market in Marikina City. — PHILIPPINE STAR/WALTER BOLLOZOS

'태풍의 영향, 공공요금 비용, 약세 페소로 인한 식품 공급 차질이 이번 물가 상승의 배경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중앙은행이 비둘기파적 경로를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BS는 중앙은행이 올해 최대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75bp 금리 인하 이후 BSP는 추가적인 세금 부과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미국 달러 경로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라오 수석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BSP는 2월 13일 기준 금리를 5.75%로 동결했으며,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미국 무역 정책으로 인한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노무라 글로벌 마켓 리서치의 분석가 유벤 파라쿠엘레스는 BSP를 포함한 중앙은행들이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불확실성 유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확실성의 정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반응적인 대응이 더 나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화요일 One News의 'Money Talks with Cathy Yang'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레몰로나 총재는 지난주 BSP가 이러한 불확실성과 다른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모델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성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는 사업 심리와 다른 간접적인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파라쿠엘레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일부 관세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는 더 큰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ont. page 2]

목표 이하 성장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하다

[Cont. from page 1]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할 이유입니다.’라고 파라쿠엘레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경제가 ‘여전히 모든 정책 부문에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 후, 저는 약간의 순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10월에 했던 것처럼 RRR(준비금 비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는 일은 나중에 이루어질 정책 금리 인하의 정책 전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우 온건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BSP는 이러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를 지원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RRR을 7%에서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2/19/654161/below-target-growth-to-support-further-rate-cuts/](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2/19/654161/below-target-growth-to-support-further-rate-cuts/)

BSP, 외부 감사인 선정 새로운 방안 승인

February 19, 2025 | Lee C. Chipongian | Manila Bulletin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모든 BSP 감독 금융 기관(BSFIs)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 선정에 관한 수정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서명된 BSP 원형 제1210호는 2월 5일 통화위원회 결의 제147호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BSP는 정책 성명에서 외부 감사인 선정에 관한 개정된 규정이 BSFIs의 기업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다른

변화와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되었으며, 2000년 개정된 일반 은행법 및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BSP는 ‘외부 감사직을 BSFIs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촉진하는 파트너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BSP는 외부 감사인, 즉 감사 회사, 파트너 또는 공공 실무를 하는 개인/단독 실무자가 감사 수행과 감사된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FS)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대중과 투자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형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 임명 및 선정에 있어 BSFIs는 ‘BSFIs를 위한 외부 감사인 목록(List of Selected External Auditors for BSFIs)’에 포함된 외부 감사인만을 고용할 것입니다.

BSP는 “이와 관련하여, BSFI는 해당 섹션에 명시된 BSFI의 카테고리보다 동일한 카테고리나 상위 카테고리의 외부 감사인만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위원회는 BSFI에 대해 감독 조치의 일환으로 상위 카테고리의 외부 감사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BSFI의 비용으로 특정 BSFI의 운영/거래에 대한 특정 검토를 외부 감사인에게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그 중 두 가지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A는 보편적이고 상업적인 은행, 외국 은행 및 외국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오프쇼어 बैं킹 유닛 포함), 디지털 은행, 신탁 부서 및 신탁 회사; 그룹 B는 저축은행, 준금융 라이선스를 가진 비은행 금융 기관, 가상 자산 제공자, 신용카드 발급/인수 기관입니다.

마지막 카테고리인 그룹 C에는 농촌 은행, 협동조합 은행, 비상장 저축대부 협회, 전당포, 송금 및 이체 회사/환전업체/외환 거래소가 포함됩니다.

BSP는 카테고리를 결정할 때, 외부 감사인이 ‘BSFIs를 위한 외부 감사인 목록’에 포함될 지속적인 자격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실적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3]

BSP, 외부 감사인 선정 새로운 방안 승인

[Cont. from page 2]

한편, BSP 목록에 포함을 신청하는 외부 감사인들은 자격을 갖추고 서류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5년간 유효하지만, BSP의 결정에 따라 그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BSP는 '외부 감사인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BSFI의 감사된 재무제표 품질과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는 외부 감사인이 목록에 남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원형은 감사 계약 및 보고 요구 사항, 감독 집행 조치, 그리고 BSP 목록에서 외부 감사인을 정지/제명하는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이전의 유효 기간이 끝난 외부 감사인은 2025년 재무제표 감사 후에도 2024년 재무제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BSP는 밝혔습니다.

한편, 2024년 재무제표 감사 및 이후의 감사 목록에 포함을 위한 모든 신청서는 금융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원형 시행 전 정지되었거나 제명된 외부 감사인은 정지 효과가 종료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이 원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후 재포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BSP는 밝혔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5/2/19/bsp-approves-new-scheme-for-selection-of-external-auditors>

PEZA, CREATE MORE IRR 서명으로 더 많은 투자자 유치 기대

February 19, 2025 | Kris Crismundo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테레소 판가(Director General)는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 재활성화 기회를 최대화하는 법안(CREATE MORE)'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 서명 이후, 전국의 경제구역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즈니스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가는 IRR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것이며, 향후 투자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공동 노력의 결과물입니다."라고 판가는 수요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2월 17일, 라프 레크토 재무부 장관과 마. 크리스티나 로케 무역부 장관은 CREATE MORE의 IRR 서명을 이끌었습니다.

IRR은 PEZA의 임무인 국가로의 투자 성장 촉진,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CREATE MORE 법은 필리핀의 투자 환경을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개선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우리 나라가 제시한 긍정적인 속성과 함께, 통신 준비가 된 숙련된 노동력, 유리한 사업 환경, 그리고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이 더해지면,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기존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머무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CREATE MORE IRR 서명 이전에도 PEZA는 일본 제조업체 P.Imes Corp.와 등록 계약(RA)을 체결하고, 제약 생태구역의 개발자 및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파트너로 Karl Group Holdings Corp. (KGH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제약 생태구역은 투자 촉진 기관(IPA)의 새로운 형태의 생태구역입니다.

P.Imes Corp.와 RA 서명에 따라 일본 회사는 카비테 경제구역에서 전자, 자동차, 의료,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산업을 위한 첨단 기술 제품 제조를 확대할 것입니다.

KGHC와의 MOU는 PEZA가 제약 생태구역에서 투자자, 제조업체, 연구 기관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약 생태구역은 의료 혁신, 제약 생산, 의료 관련 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PEZA의 이니셔티브와 일치하여, 생태구역 내 국내 생산을 가치 사슬에 통합하고, 특히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혁신적인 헬스케어 솔루션의 선도적인 제공업체인 KGHC는 최첨단 의료 장비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IPA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4440>



PEZA Director General Tereso Panga (File photo)

마르코스, BOT 계약 하 민간발전사업자의 부동산세 감면 및 탕감

February 19, 2025 | Anna Felicia Bajo | GMA Integrated News



Under the executive order signed by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the interests and/or penalties on deficiency real property taxes of IPPs under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s with GOCCs are also condoned. Screenshot from RTVM video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정부 소유 또는 통제 법인(GOCC)과의 건설-운영-양도(BOT)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 발전사업자(IPP)의 발전 시설에 부과된 부동산세(RPT) 및 이자 또는 벌금을 감면 및 탕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제83호에 따르면, 지방정부단체(LGU) 및 RPT 부과 권한을 가진 기타 기관이 2024년 과세연도(CY)에 대해 평가한 IPP의 발전용 부동산,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모든 RPT 부채(특수교육기금에 할당되는 특별 부과금 포함)는 해당 부동산, 기계 및 장비의 공정시장가치의 15%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연 2%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으로 감면된다. 단, IPP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된다.

해당 감면 조치는 BOT 방식 및 이와 유사한 계약(전력구매계약, 에너지 전환계약 또는 기타 계약 포함)에 따라 GOCC와 협력하는 IPP의 전력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EO)에 따르면, 이러한 부족한 부동산세(RPT) 부채에 대한 모든 이자 및/또는 벌금도 탕감되며, 해당 독립 발전사업자(IPP)는 해당 금액의 납부 의무에서 면제된다.

지방정부단체가 2024년 과세연도(CY)에 대해 최대 80%의 평가 기준으로 부과한 RPT를 징수할 경우, 이는 국가전력공사(NAPOCOR) 및 전력자산관리공사(PALM)에 막대한 직접 부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들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내무부(DILG)와 재무부(DOF)는 지방정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맡게 된다.—KG,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36676/marcos-reduces-condones-real-property-taxes-of-ipps-under-bot-contracts/story/](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36676/marcos-reduces-condones-real-property-taxes-of-ipps-under-bot-contracts/story/)

필리핀-유럽연합, 협상 가속화; 2027년 이전 완료 목표

February 19, 2025 | Alden M. Monzon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은 유럽연합(EU)과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양측은 이를 3년 이내에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주 최신 협상 라운드가 종료된 후, 앨런 젠티(Alan Gepty) 무역부 차관은 《인콰이어러(Inquirer)》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과 EU 간의 양자 협정을 2027년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티 차관은 “이번 FTA는 필리핀과 EU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EU는 필리핀의 주요 무역 및 투자 파트너 중 하나이며, 양국 경제 간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많은 잠재력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비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말했다.



INQUIRER.net stock images

그는 이어 “따라서 우리는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2027년 이전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협상 라운드에서, 양측은 제안된 FTA의 새로운 주요 요소들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디지털 무역, 에너지 및 원자재, 우수한 규제 관행, 정부 조달, 국영기업,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중소기업(MSME), 무역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젠티 차관은 “우리 이해관계자들에게 EU는 중요한 시장이며, 특히 참치, 코코넛, 카카오, 파인애플, 반도체 및 전자제품과 같은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양국 간의 좋은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투자자, 서비스 제공업체,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협상 라운드는 6월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필리핀과 EU 당국은 지난해 3월 벨기에에서 공식 FTA 협상 재개를 발표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당시 “2022년 필리핀과 EU 간 상품 교역 규모는 184억 유로(약 1조2천억 페소, 유로당 60.6페소 기준)에 달했으며, FTA를 통해 연간 60억 유로(약 3,638억 페소)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07059/ph-eu-fast-track-fta-talks-completion-eyed-before-2027](https://business.inquirer.net/507059/ph-eu-fast-track-fta-talks-completion-eyed-before-2027)

미국, 반도체 관세 25% 예고... 수출 둔화 우려

February 19,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Workers are seen at an electronics manufacturing assembly plant in Biñan, Laguna, April 20, 2016 — REUTERS

미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필리핀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비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높은 수입 관세, 특히 상호 관세 조치는 필리핀의 수출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국제 무역, 특히 필리핀의 대미 수출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현지시간) 4월까지 자동차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에도 유사한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관세 부과 발표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며, 반도체 및 제약 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할 시간을 제공하여 관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이 발표한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제품이 필리핀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총 수출액의 53.38%에 해당하는 39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클 L. 리카포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조치는 필리핀의 대미 최대 수출품인 점화 배선 세트, 기타 제조 상품, 코코넛 오일, 기계류, 운송 장비 등을 포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해외구매자협회(Foreign Buy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회장 로버트 M. 영(Robert M. Young)은 반도체 관세가 필리핀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산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대미 반도체 수출이 향후 23년 내에 90억1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필리핀산 반도체 수출에 대한 관세 부가가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US CHIPS and Science Act)’에서 명시된 미국의 약속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7개국 중 하나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업을 지원하고 중국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이나 우호적인 국가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로버트 M. 영 회장은 “CHIPS법이 계속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의 수출 산업이 현재 관망하고 있으며, 필리핀이 미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작은 수출국이기 때문에 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에 50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는데, 이는 필리핀보다 8~10배 많은 규모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필리핀의 자동차 부품 및 제약 산업 수출 규모는 작지만,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과 대만 같은 반도체 생산국들도 공급망을 위해 필리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개입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제약제조업협회(Philippin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히히니오 P. 포르테 주니어(Higinio P. Porte, Jr.) 회장은 이번 관세 조치가 필리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제약업체들은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비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말했다.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아시아, 중동, 호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출국으로, 총 수출액 121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16.6%를 차지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2/19/654408/export-slowdown-looms-as-us-signals-25-chip-tariffs/](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2/19/654408/export-slowdown-looms-as-us-signals-25-chip-tariff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background image of a person wearing a black helmet and jacket riding a red motorcycle on a city street. In the foreground, a red drone is shown carrying a brown cardboard box. A yellow rectangular frame highlights the drone and the box. The sky is blue with some light clouds. The overall theme is about business and sustainabilit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2024, SGV Corrosion & Co., All Rights Reserved.

How will business move faster to slow climate change?

It will take busines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to reverse climate change.

Find out how SGV can help you reframe the future to create a better, more sustainable working world.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